

세계기도정보

[세계] 인공 지능 이용한 성경 번역 기술 개발
 [레바논] 레바논 헤즈볼라 대원, 감옥서 예수님 영접하고 목사 돼
 [멕시코] 멕시코서 하루 12시간 '앵벌이'하던 20명 구조...1세 유아도
 [중국] '메이플라워 교회' 목사 "중국 공산당, 신앙과의 전쟁 시작"
 [독일] 종교개혁 국가 독일의 현주소...1.6%만 "매일 성경 읽어"
 [세계] 굶주리는 세계 인구 7억여 명...증가세 멈췄지만 기아 종식 요원
 [니제르] 니제르, 이슬람 지하디스트 공격에 기독교인들 탈출
 [미국] 미국, 1인 가구 역사상 최고...30% 육박
 [우즈베키스탄] 우즈벡 대통령, 조기 대선서 87%로 압승...장기 집권 발판 마련
 [시리아] 시리아, 자국 내 BBC 방송 인가 취소...거짓·편향 보도 이유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500일...출구 없는 소모전에 국민 78%가 가족·친지 사상
 [라트비아] 동성애자 국가원수...라트비아 새 대통령 취임



-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교회 부르심교회(경연우목사), 경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2023. 07 멕시코에서 온 편지



담임목사 김성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하나님 나라!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열린 문 vs 느린 멕시코..

쿠바 사역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8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 달의 기간 동안 코스타리카의 친구 까를로스 목사와 함께 쿠바에 들어간다. 이 기간동안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111가정의 쿠바 목회자들을 만나볼 예정이다. 누군가는 나를 만나는 것 자체로 위로받고 힘을 얻지만, 이제부터 각 목회자 가정이 중보 기도자들을 한국으로부터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이번 쿠바 방문은 준비할 것이 많다. 9월은 태풍이 부는 기간이다. 현지 교통수단으로 각 가정교회를 방문해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기에, 오랜만에 2인용 텐트와 매트리스, 코펠, 정수필터 등을 꺼내 지방에서 지낼 최소한의 장비들을 준비 중이다.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건강이 걱정된다. 그러나 함께할 친구들이 있어 감사하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사역할 이유가 없으니, 이번 쿠바 방문 기간동안 서류를 준비해 다녀온 후 쿠바 종교 비자를 신청할 예정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쿠바 사역을 준비하며 멕시코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멕시코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 이곳에 들어왔는데, 지금 쿠바에 이렇게 집중해도 되는지 고민이다. 쿠바가 지금 열린 문이라면, 멕시코는 느리다. 올해 3명의 목사가 안수받고, 갱신소에서 2명이 내년에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특히 7살때부터 막노동을 하다 마약에 중독되었다가 늦게 공부를 시작한 앙헬이 의대 입학 준비 중이다.

과달라하라 행복한 교회 호세 목사는 자신의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 새로운 교회 부지를 찾는 동안 그가 하나님께 내린 결단이다. 갱신소도 자립이다. 엔리께 목사와 앙헬라가 섬기는 교회도 마약 갱신소에서 회복된 이들중 미국에서 일하는 이가 감사의 뜻으로 교회 부지를 구입해 주길 원한다.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이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감사하다. 힘써 나를 돕고 있는 메리다의 스승 같은 제자들도 감사하다. 그러나, 2030에 있을 소갈로 광장의 집회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느리게 느껴진다. 그렇다! 지금 내가 사역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의 결과다. 내 계획이 아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겨자씨 한 알의 믿음으로 건자!

소망!

7월 18일 화요일, 코스타리카의 하비 목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목사님, 쿠바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 전달 프로젝트에 어떻게 헌금을 보내야 할지 알려주세요. 우리도 같이 이 일을 두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주는 갱신소와 바빠 사역을 하는 엔리께 목사와 앙헬라 여 목사도 나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 모두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10)”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 아직 이곳에 소망이 있다. 멕시코 메리다에 있는 스승 같은 제자들이 모여, 쿠바의 상황을 자신의 성도들과 나누며 의약품을 모집했다. 그리고 이민 가방 2개 분량의 의약품을 나에게 보내어 왔다. 어제 이 약품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며, 감사했다.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온 인생들이, 주

해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부가 되길 소망한다.

7월 19일 수요일, 까마웨이에 있는 라몬 목사로부터 5월에 내가 전달한 의약품을 다 소진했다는 연락이 왔다: “목사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지역 교회들을 찾아온 약 300명에게 의약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여전히 쿠바는 의약품과 생필품이 필요하다. 남편의 백내장 수술을 위해 필요한 렌즈를 구해달라는 한 여인의 간절한 편지, 간질병으로 수시로 발작하는 아들을 위해 약을 구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한 목사의 소식 등을 접하며 나의 한계를 절감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나 동시에 곳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는 소망을 품는다.

한 하나님, 한 구주, 한 성령!

7월 13일 목요일, 한국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죽전의 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쿠바의 목회자 111가정을 위해 2년에 걸쳐 헌금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부산의 파송 교회에서도 교회 전체 셀(55셀)이 각각 쿠바의 한 목회자 가정을 기도와 물질로 섬기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해 주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 한 하나님, 한 구주, 한 성령을 상징하는 숫자인 111가정을 선정해, 이 일에 헌신해 주신 한국 교인 111개 그룹과 쿠바 목회자 가정을 연결하고 기도와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던 쿠바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것이다.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일은 쿠바의 신실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111명의 목회자 가정을 선발하는 일이다. 우리 소속 목회자가 67명이다. 이들 중에서도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임지를 벗어난 이들이 있다. 교단과 관계없이 정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고 연결하는 일, 누구는 40불을 또 누구는 20불을 매달 받을지 선정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까를로스 목사가 묻는다: “목사님, 후보 명단에 있는 호세 라파엘 목사를 도우실 겁니까?”. 라파엘 목사는 쿠바에 있는 사도 및 선지자 교회의 대표다. 쿠바의 민주사회를 위해 교회가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다. 혁명당과 같은 이들로 인해 나는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이들을 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까를로스에게 말했다: “목사님, 우리의 도움은 힘의 행사가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 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연결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도제목-

1. 현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해야 하기에 쿠바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쿠바의 모든 일정이 잘 조율되고 꼭 도움을 받을 이들이 우리와 연결되도록.
2. 8월에 있을 과달라하라의 여름 사역(청소년 및 여성 리트리트)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3. 저의 몸이 정상이 아님을 계속 느낍니다.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